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5> 연기수행 ㉔

무명에서 喜怒哀樂까지... '12연기' 이어지다

희 노 애 락

12연기 순관하기-그 첫 번째

연기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은 12연기를 순관 하는 것이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장소가, 6가지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괴로움, 불만족, 절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기를 보는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12연기를 하나하나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식별한다. 우선은 첫 번째 전생을 과거로, 이생을 현재로, 첫 번째 미래 생을 미래로 하여 12연기를 본다. 이것이 끝나면 두 번째 전생을 과거로, 첫 번째 전생을 현재로, 이생을 미래로 하여 12연기를 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전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12연기를 본다. 다섯 번째 방법에서처럼 항상 아나빠나사피, 까시나, 무색계 선정 후에 첫 번째 방법으로 연기를 식별한다.

무명은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이다. 행도 첫 번째 전생의 행이다.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첫 번째 전생의 행이 일어난다.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이 원인이고 첫 번째 전생의 행이 결과다. 무명과 행 둘 다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서 식별한다.

나의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이다. 첫 번째 전생에 스님을 보고 '나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무명이 일어난 것을 안문 인식과정과 의문 인식과정에서 식별한다.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서 탐욕과 사견이 있는 마음, 마음부수 20가지를 식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이다. 이 무명이 첫 번째 전생의 행의 결과를 가져왔다.

행은 입중 시 행을 본다. 입중 시 행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행이 된다. 첫 번째 전생의 입중 시 행은 표상이 절이다. 절을 복구하고 수리하는 업의 행이다.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서 희열과 지혜가 있는 유일한 마음의 마음, 마음부수 34가지를 식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전생의 행이다. 이렇게 12연기의 첫 번째인 '무명이 일어나므로 행이 일어난다'를 식별한다.

행은 앞서 '무명이 일어나므로 행이 일어난다'고 할 때의 행이다. 행은 첫 번째 전생의 행이다. 희열과 지혜가 있는 마음, 마음부수가 34가지인 유일한 마음이다. 식은 과보로서의 식으로, 이생의 과보의 식이다.

과보의 식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인 재생연결, 바탕가, 죽음의 마음의 식과 5식(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다. 5식은 받아들임, 조사, 등록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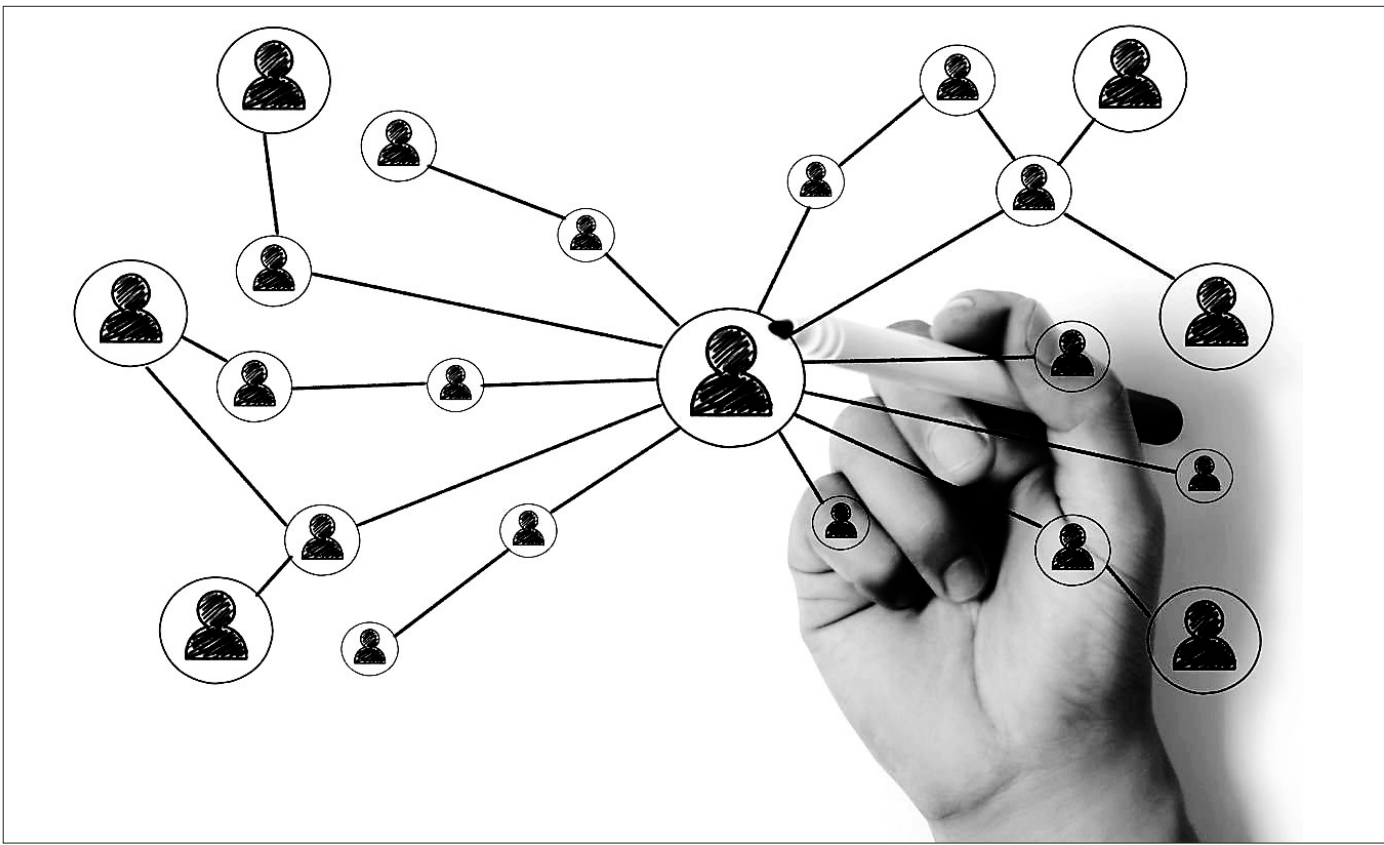
행이 일어나므로 행의 과보로써 식이 일어난다. 행이 원인이고 행의 과보로 나타난 식이 결과다. 5문 인식과정과, 5문 인식과정 후에 일어나는 의문 인식과정과, 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의문 인식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난 식을 식별한다. 마음과 마음부수를 같이 식별한다. 유익한 마음의 자와나와 해로운 마음의 자와나의 인식과정 모두를 식별한다. 재생연결의 식, 바탕가의 식, 죽음의 마음의 식,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을 식별한다.

'식' 후에 일어나는 것들

식이 일어나므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고 할 때 식에는 2가지가 있다. 바로 과보로 나타난 식과 과보가 아닌 식이다. 이 두 식이 정신-물질을 일어나게 한다. 과보로 나타난 식은 재생연결, 바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이다. 과보가 아닌 식은 유익한 식, 해로운 식, 단지 작용만 하는 식이다. 이 가운데 유익한 식과 해로운 식은 새로운 존재 상태가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업지우(ahhisankhara)' 혹은 '업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보를 불러오는 업이나 행과 같이 있는 식이 업식이다. 정신-물질을 생기게 하는 것은 업식과 과보로 나타난 식이다.

먼저 업식이 정신-물질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살펴보자. 업식은 전생의 행에 같이 있는 식이다. 첫 번째 전생의 행의 마음, 마음부수 중 마음을 식별하면 된다. 이 업식이 재생연결, 바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의 정신-물질을 일어난다. 따라서 과거의 업식이 원인이고 재생연결, 바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의 정신-물질이 결과다. 이때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이고, 물질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다. 이것을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모든 인식과정에서 식별한다.

이번에는 과보로 나타난 식이 정신-물질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겠다. 과보로 나타난 식은 재생연결, 바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이다. 파옥 사야도는 과보로 나타난 식에 5문전향, 결정, 자와나, 의문전향, 자와나의 식을 포함해야 한다 했다. 그 이유는 '마하파카'복주서 2권 323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따르면 식, 정신-물질, 6가지 감각장소, 접촉, 느낌은 오직 과보로 나타난 법일 뿐이다. 그러나 과보로 나타난 법 중에서 5문전향 없이 5식, 받아들임, 조사가 일어날 수 없고 자와나 없이 등록이 일어날 수 없다."

정신-물질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6가지 감각장소의 형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정신이 일어나므로 마노의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각 마노의 감각장소가 함께하는 마음부수이고, 감각장소는 각 마음부수와 함께 일어나는 식(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부수가 있으니까 마노의 감각장소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정신의 토대로서의 물질과, 정신이 향하는 곳인 대상의 관계를 아는 것은 연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신과 물질적 토대와 대상은 항상 같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들 셋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정신은 물질적 토대의 원인이 되고, 물질적 토대는 정신의 원인이 되고, 물질적 토대는 정신의 원인이 되고, 정신은 물질적 토대의 결과가 된다. 또 물질적 토대는 정신의 원인이 되고, 정신은 물질적 토대의 결과가 된다.

연기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를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다. 연기 수행을 하고 나면 현상을 볼 때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철저히 보게 된다.

두 번째, 정신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

12연기 '無明'에서 처음 시작 하나하나 원인·결과 식별해야 정신 향하는 대상 관찰 중요 현상 볼 때도 인과구분 가능해

질이 일어난다. 『뱃타나제1권 7에 의하면 4가지 무색계 과보의 마음을 제외하고, 이어서 일어나는 85가지 마음-52가지 마음부수의 마음-마음부수 그룹이 앞의 마음순간에 일어난 4가지 종류의 물질의 몸을 지원한다. 여기서 마음-마음부수(정신)가 감각장소 물질을 지원한다는 말은 결과가 되는 물질이 먼저 일어나고 원인이 되는 정신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정신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난다고 할 때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다.

세 번째, 물질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난다. 네 번째, 물질이 일어나므로 마노의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정신은 물질 토대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5식은 눈의 토대와 같은 물질 토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마노의 감각장소다. 5식을 제외하면 마노의 감각장소는 심장토대에 의존한다.

6가지 감각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들

6가지 감각장소에는 내부의 6가지 감각장소와 외부의 6가지 감각장소가 있다. 이

12가지 감각장소를 6가지 감각장소로 삼는다. 내부의 6가지 감각장소는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코의 감각장소, 혀의 감각장소, 몸의 감각장소, 마노의 감각장소다. 외부의 6가지 감각장소는 행상의 감각장소, 소리의 감각장소, 냄새의 감각장소, 맛의 감각장소, 감촉의 감각장소, 법의 감각장소다. 이 12가지 감각장소에는 52가지 마음부수와 16가지 미세한 물질이 포함된다. 모든 식을 마노의 감각장소라고 부르며, 각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부수를 법의 감각장소라고 부르며, 심장토대도 법의 감각장소라고 부른다.

접촉에는 6가지 접촉이 있다.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마노의 접촉이다. 재생연결, 바탕가, 죽음의 마음, 5문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와나, 등록, 의문전향과 함께하는 모든 접촉을 마노의 접촉이라고 한다.

접촉은 정신(마음과 마음부수)과 토대, 대상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접촉이 일어나려면 마음, 마음부수, 토대, 대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 마음부수, 토대, 대상이 원인이 되고 접촉이 결과가 된다.

또 6가지 접촉 때문에 다음 6가지 느낌이 일어난다. 눈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여기서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과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강력하고 그 결과 생긴 느낌도 강력하다. 반면에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이 일어나 모든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모든 마음에 접촉으로 인한 느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보다 약하다. 수행을 할 때 이 두 느낌을 식별한다. 마노의 접촉은 의문전향의 접촉으로 식별하면 된다.

다음으로 느낌이 일어나므로 갈애가 일어난다. 여기서 느낌은 첫 번째 미래 생에 대한 느낌이다. 그 느낌으로 인해 미래 생에 대한 갈애가 지금 일어난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많은 느낌은 갈애를 일으킨다. 어떤 느낌이 일어난 갈애는 이생에서 끝나 다음 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어떤 느낌이 일어난 갈애는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12연기는 계속되는 윤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수행에서 대상으로 삼는 갈애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갈애가 취착을 일으키고, 취착은 존재를 일으키고, 존재는 생을 일으킨다.

이렇게 식별하려면 첫 번째 미래 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첫 번째 미래 생은 스님으로서의 생이다. 그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내가 좋아하여 그것에 대해 애착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갈애다.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미래 생에 법문을 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은 느낌이 들어 애착을 일으키면 갈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스님 생활이 마음에 들어 그것에 대해 애착이 생기면 갈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미래 생을 보고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토대로 애착이 생기면 '느낌이 일어나므로 갈애가 일어난다'를 볼 수 있다. 이때 애착은 6가지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해 갈애가 생긴다. 갈애를 의문 인식과정에서 대상과 마음, 마음부수로 식별한다. 탐욕과 사견 또는 자만의 마음부수를 가진 해로운 마음이 자와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정리·박익문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종공고

- 법명 : 해관 (정진웅)
- 주소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대밭땅길 36
- 법명 : 청암 (유승준) 와동사
- 주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무량로 369
- 법명 : 정업 (배호춘)
- 주소 : 경남 영천시 대창면 칠백로 148-79
- 법명 : 영선 (박경순) 광덕사
- 주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048
- 법명 : 해랑 (이지연) 달마사
- 주소 : 대구시 북구 복현로 78-5
- 법명 : 태안 (김원웅)
- 주소 : 대구시 북구 복현로 78-5
- 법명 : 영주 (정종식) 천명사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계안로 74-32
- 법명 : 도명 (윤귀숙) 여여암
- 주소 : 울산시 북구 치전길 24-8 109동 101호

상기 사찰 및 8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사)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법명 : 송원(김근출)
- 사찰명 : 석가사
- 주소 : 경남 마산시 회원2동 산 55-7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하

松根油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썩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 010-8558-2345